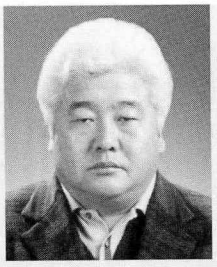
해외 시장 주력, 포장기계업계 선도

멀티코팅기계 개발 완료 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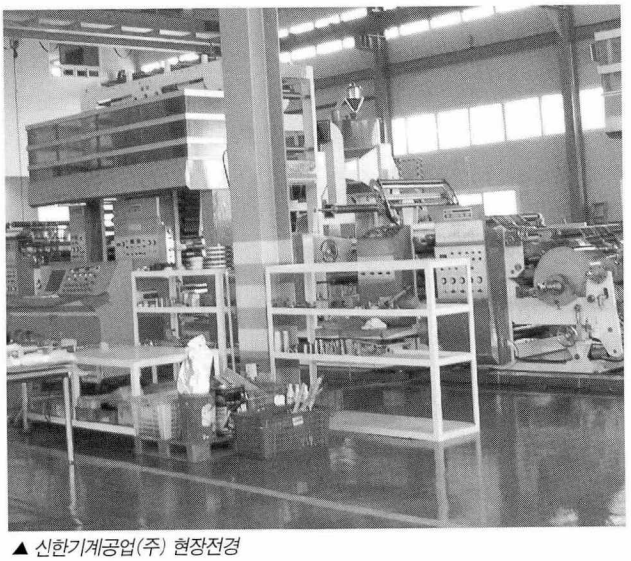


유 제 길
신한기계공업(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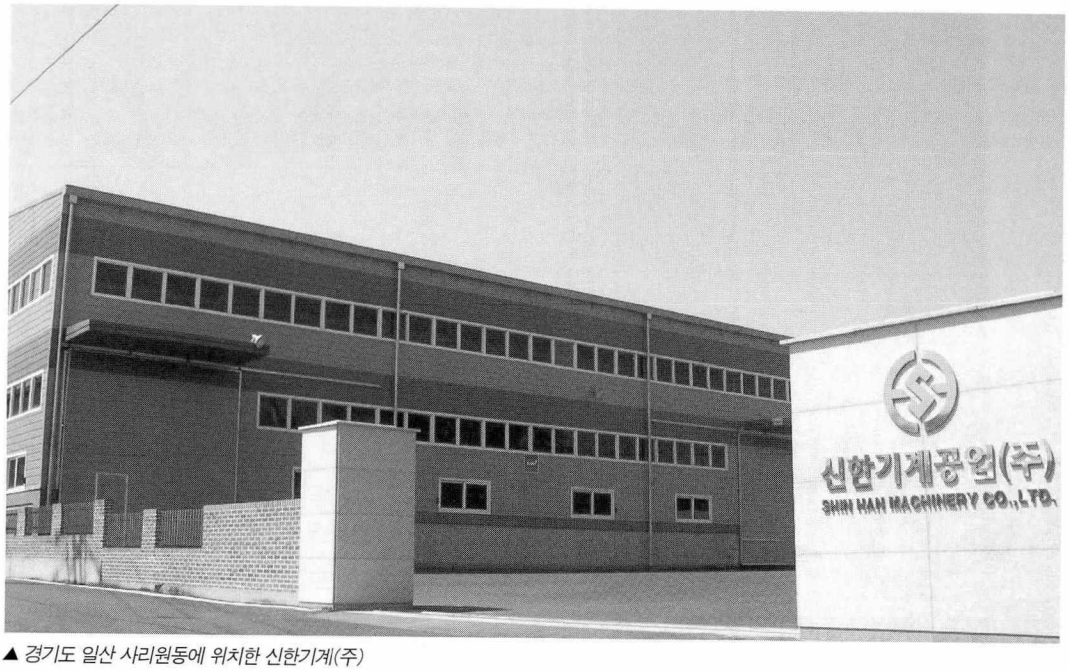
현재 수년간 거듭되는 내수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포장업계의 난고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와 설비증설현황은 바닥에서 맴돌고 있다.

이런 어려움은 포장기계 업계 역시 예외가 아닐 터. 몇 년 전부터 포장기계 업계는 해외시장 개척이 업계 성장의 돌파구로 예견됨에 따라, 동남아 시장과 중국 시장을 비롯해 이제는 독일, 미국, 일본 등지의 선진 시장 개척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에 역점을 두는 것은 물론, 국내 내수 시장에서도 신용과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한기계공업(주)(대표이사 유제길)을 찾았다.



▲ 신한기계공업(주) 현장전경



▲ 경기도 일산 사리원동에 위치한 신한기계(주)

경기도 일산 사리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한기계공업(주)은 지난 1981년 3월에 설립된 그라비어 인쇄기 및 라미네이터 전문 생산 업체이다.

25년 이상 정밀기계 부품의 설계, 제작기술과 전자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의 포장업계에 그라비어 인쇄기, 라미네이터 등 포장자재 가공 기계들을 공급해 오고 있는 신한기계공업은 '신용' 하나로 업계에서 그 위치를 공고히 인정받으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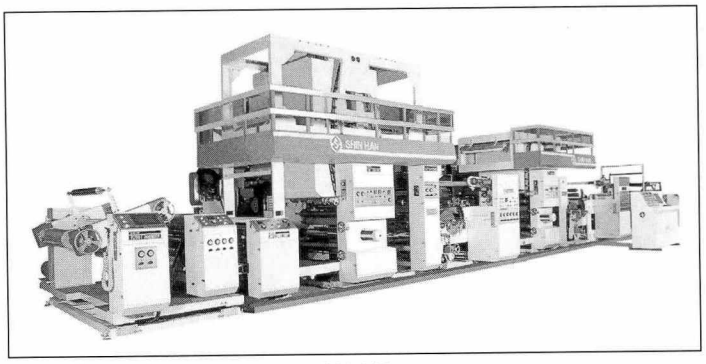
1970년대 라미네이팅 및 슬리터 기계를 생산하며 기계 제조 메이커의 원조로 각인되던 강성기계에 종사했던 유제길 사장은 회사가 부도나면서, 신한기계를 창립하게 된다. 그러나 신한의 시작이 녹록하지는 않았다.

81년 3월 서울 강서구에 공장 셋방살이를 시작으로 신한을 꾸려간 유제길 사장, 현실과 상황은 어려웠지만, 엔지니어 출신다운 유제길 사장의 노하우와 기술력은 오늘날 신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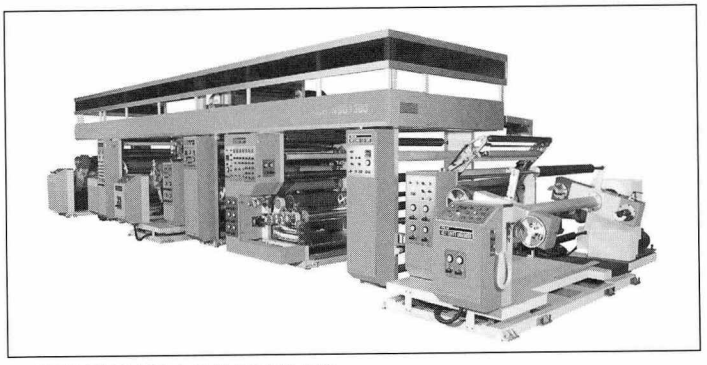
그 결과 지난 달에는 경기도 일단 사리현동으로 공장을 신축, 이전하면서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내수 경기의 낙후로, 가동율은 50%도 채 못미치는 것이 현실. 그러다보니, 신한은 수출에 90% 이상을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품질과 뛰어난 기술력의 신한이지만 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수출로 인한 환차손은 극복해

SHINHAN



▲ TANDEM EXTRUSION LAMINATING MC



▲ SOLVENTLESS LAMINATING MC

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신한기계공업(주)은 1991년 경기도 일산 식사동 시절부터 수출 시장에서도 박차를 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등지에 OEM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직접 수출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연구, 개발과 과학적인 제품생산, 철저한 품질관리,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신한기계공업(주)은 그라비어 인쇄기를 비롯해, 코팅기, 무용제 라미네이터, 웨트 라미네이터, 슬리터기를 생산하며 발전하고있다.

특히 신한의 압출라미네이터는 높은 기술력과 탄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그 가운데 압출기와 T-다이를 각각 2대씩 갖춘 탠덤 라미네이터는 1999년 제작된 이래, 현재까지 호평을 받고 있으며, 공압출 라미네이터(Co-extrusion Laminator)도 2006년 이후 각광받고 있다.

1994년, 이미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신한기계공업은 ISO 인증까지 획득하는 등 내실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신한의 기계는 우수한 정밀성과 내구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운전조작과 짧은 작업조작시간으로 높은 생산성을 구현, 탁월한 효율성을 자랑하

▲ ROTO GRAVURE PRINTING MC

고 있다. 따라서 신한의 기계를 사용하며 경험한 업체들은 다른 업체를 소개하는 등, 입소문과 신용, 신뢰를 바탕으로 신한의 영업은 이뤄지고 있다.

해외수출만으로 2005년 대비 지난해 40% 가량 비약적인 매출 성장을 이룩한 신한기계는 올해 15%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다.

유제길 사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신한 가족들은 저가의 중국산 기계와 해외시장에서 겨루기 위해 경쟁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며, 압출 전문업체라는 자부심과 최고의 기계를 생산한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신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신한은 올해 멀티코팅기계 개발 계획을 갖고 이미, 국내 제작을 완료한 상황이다.

중국 및 동남아 수출에서 벗어나, 일본, 유럽 등지에서도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발전할 계획인 신한기계공업(주).

정도와 신뢰를 경영철학으로 신한을 발전시켜 온 유제길 사장은, 공정거래와 공생한다는 마음을 바탕으로 포장기계 업계를 비롯한 국내 포장산업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속적인 아이템 개발과 차별성으로 연포장 가공업계를 선도해 온 신한기계.

공장신축 이전을 계기로, 마케팅에 주력하며 업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신한의 발전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ko

박초혜 기자